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성경의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五餅二魚) 이 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5천 여 명의 무리가 배불 리 먹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석 과 논쟁보다는 그 자체 상황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일단 당시 상황을 보면 네 종류의 주체가 등장한다. 예수와 제자들, 5천 여 명으로 표현되는 성인 남성들, 그리고 무리 속에 있었지만 기록되지 못한 여성과 아이 들이 그들이다. 무엇보다 이 주체를 바라보는 예수와 제자들의 시선이 다르다. 제자들은 본인들이 예수를 따 르는 자로서 예수와 모인 무리들의 관계로 바라본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날 이 저물어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 떻게 먹일 것인지 걱정이 되었다. 제자들은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 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 내시는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예수와 무리의 관계가 있을 뿐, 예수와 제자의 관계, 제자와 무 리의 관계는 빠져 있다.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

삶은 선택이다

지만 항상 제자의 역할, 제자의 길을 강조한 것은 이유 가 있다. 본인이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일을 하도록 한다. 제자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빈 들에 모인 배고픈 무 리들의 현실을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 수는 제자들이 상황을 회피한 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씀 하신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에도 제자들은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다. 퇴로는 없었다. “너 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 후 에 나온 결과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 다.’ ‘빈 들’과 ‘날이 저문’ 것은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이 자 조건이다. 예수는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우리 가 있는 곳이 ‘빈 들’이니까 속히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날이 저물었으니 흠어져 집으로 가야 한다는 제자들의 말을 뒤집는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꽃이 지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 떻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그것을 부정한다면 우리 는 한없이 오만하여 맘대로 살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체념 속에 빠질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가 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 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요, 비구름을 얹애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해가 진 다음에, 바람이 불 때, 비가 내릴 때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정작 바람을 멈추게 하려는 이들은 바람이 불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비가 내리는 걸 막으려고 했던 이들 은 정작 비가 내리면 나 몰라라 한다. 우리가 처한 시간 과 공간을 생각해 본다. 우리는 지금 ‘날이 저문 시각’, ‘빈 들’에 서 있다. 이곳이 갑자기 아름다운 숲으로 바 꾸지는 않을 것이고 태양이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삶은 선택인 것이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선택하는 삶이아말로 개인을 존중한다. 계부애 의 해 죽임을 당한 다섯 살 아이는 삶을 선택할 수 없었다. 선택할 수 없는 삶이 늘어나는 시대에 선택하는 삶을 살 아가는 것은 권리보다는 책임이 가까운 것은 아닐지. “다섯 살 아이에게는 삶이나 죽음을 선택할 기회가 없었다. 그 어린이는 다른 사람의 의지로 인해 죽었다. 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 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날마다 살기로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나처럼 선택의 순간을 가졌든 아니든 간에, 지 금 살아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것 이 아닐까. 삶을 선택한다는 건 나아가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니까. 나아가려면 외면할 수 없으니까. 나아가려 면 맞아야 하니까. 삶을 선택한다는 건 그런 것이니 까.”(김소영, ‘어린이라는 세계’, 사계절, 165쪽)

종교칼럼

결코 작지 않다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민음에 관련된 복음서의 대표적인 비유는 ‘겨자씨’ 이야기다. 모든 일의 시작은 크거나 원대하지 않고 ‘겨 자씨’처럼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겨자씨’는 작 아서 의미 없어 보이지만 성장한다는 가능성이 있기에 작다고 할 수 없다. 그 작은 씨앗은 그 시작에 있어 미 약할지 모르지만, 싹이 트면서부터 커다란 변화의 가 능성과 함께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작은 것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되며, 작은 것에서 얻어지는 소중한 체험들을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 작지만 그 안 에서 소중함을 체험한 이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질을 자신의 삶에서 실 현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만일에 그 씨앗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자란다면 어떤 변화 와 힘이 드러날 것인가? 그 반대로 그 씨앗이 불신과 절망과 미움 안에서 자란다면 어떨겠는가? 6년 동안 남미 칠레에서 선교사로 살았던 필자는 소 중한 체험들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다. 작은 감치 한 조각의 체험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소중한 일화

중 하나다. 처음 선교했던 곳은 칠레 남쪽 도시인 오소 르노(Osorno) 교구로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1000km 떨어진 지방 도시였다. 한국 사람이라고는 두 명의 사제뿐이었다. 가끔 수도 산티아고에서 한인 신 자들이 멀리 사는 두 사제를 위해 감치를 보내 주는데, 보물단지 마냥 아껴서 먹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어느 날 유통 기한이 지난 라면을 끓이고 냉장고에 있는 감치를 꺼내 왔다. 감치를 먹으려고 반찬통을 여 는 순간, 당황스러웠다. 왜냐하면 남아 있는 감치는 겨 우 작은 조각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함께 살았던 신 부님이 대충 젓가락으로 작은 조각의 감치를 자르려고 할 때, 나는 그 신부님을 제지하고 열른 내 방으로 가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10cm 자를 가지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10cm 자를 작은 조각 감치에 대며 정확하게 이등분하여 나누어 먹었다. 아주 작은 조각의 감치였 지만, 나와 다른 신부님은 웃으면서 맛있게 먹었던 기 억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먹었던 유통 기한 지난 라면과 작은 조각의 감치가 정말 맛있었다. 칠레를 떠 난 지 이제 4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공동 사제관에서 당연하면서도 풍성하게 차려 나오는 감치를 보고 먹을 때마다 칠레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작고 소박한 것,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것에 행복이 있다. 그런데 작은 것도 나누지 못하면서 나눔은 큰 것 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들이 많다. 결국 자기 것은 어떤 것도 나누고 싶지 않 으면서 ‘어렵겠다’ ‘불쌍하다’ ‘배고프겠다’ ‘출겠다’

‘왜 저러고 살아?’ 등의 비판과 평가를 쉽게 내려 버린 다.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서 야 어떻게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 그러나 가난 하고 소외된 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이 들, 각자 서로 다른 이유로 녹아웃하는 이들, 사회의 차 가운 눈을 피해 홀로 외로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 들,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큰 것일까? 혹시 이들 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작은 것 이 아닐까? 복음서에 예수가 만나는 사람들은 사회 밑바닥에 있 었던 가장 작은 이들이었다. 예수는 당신이 만났던 약 자들의 생명과 자유, 해방을 위해 그 시대에 대항하셨 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와 예수가 사셨던 시대 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 주위에 노숙인, 이주 노동자, 미혼모, 독거노인,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과 같이 약자들이 많다. 코로나 상황에 추위까지 겹치면서 이 들의 삶은 더 어렵고 험난한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다. 그런데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나 념의 실천은 물질에만 한정되지 않고 확장되어야 마 음,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사랑 등 보이지 않는 나 념도 존재한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나눔을 실천한다면 나눔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겨 자씨’는 그렇게 작으면서 엄청난 성장과 영향을 준다.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결 코 작지 않다.

社說

5·18 관련 3법 국회 통과 진실 규명 계기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외국 행위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오월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엇그제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 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진상규명위 기간 연장 등)을 의결했다. 관련 개정안에는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각 1년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위원회 정원을 50명 에서 70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 실제적 진실 규 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 다. 5월 관련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로 꼽 혔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역사왜곡처벌법)도 의 결됐다. 이 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하 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로써 출판물 과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자행되는 5월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 한 법률’도 통과돼 5·18유공자들이 공법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5·18민 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 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가 마련됐다. 오월 3법의 국회 통과는 5월 진상 규명 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 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은 형식과 제도 를 규정한 장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오월 3법 국회 통과가 5·18 에 대한 왜곡·폄훼 방지와 5월 진실 규명 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법의 취지 를 심본 반영해 5월의 진실을 규명하고 실제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5·18 진상규명조사위 등 관련 단체 등의 책무 의식과 노력이 절실하다.

특성화 고등학교 체질 개선 적극 나서야

한때 잘나가던 특성화 고등학교가 위기 에 처했다. 취업률 하락과 고졸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신입생 증원도 안 되는 데다 일반계 고교 로 전학하는 학생마저 늘고 있다. 이 같은 3중고로 인해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특성화고 해체 위기까지 나오는 판이다. 위기는 우선 일반고로 전학을 가는 학생 들이 늘고 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진 로 변경 전략’을 통해 올해 1학기에만 광 주에서 27명의 특성화고 학생이 일반고 로 옮겼다. 반면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학한 학생은 4명에 그쳤다. 특성화고에 서 일반고로 전학하는 인원은 2017년 27 명에서 지난해 56명으로 해마다 급증하 고 있다. 두 번째 위기는 신입생 증원이 해마 다 떨어지면서 미달 학교가 속출하고 있 다는 데 있다. 2018년 91%이던 신입생 증원율은 지난해 88%까지 떨어졌다. 올 해는 광주 지역 13개 특성화고 정원 2560명 가운데 9.7%인 248명이 미달해

5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보다 못 한 광주시교육청이 정원을 10.2%인 230 명이나 줄여 최근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섰지만 1차 모집 결과 6개교에서 310 명이 미달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이 제때 자 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학교 측이 입 시설명회를 열지 못한 점, 그리고 고졸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도 특성화고 기 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특성 화고 기회 현상이 심해진 가장 큰 원인은 취업률 하락에서 찾을 수 있다. 2017년 60%대이던 광주 지역 특성화고 취업률 이 지난해 50%대 초반으로 떨어졌기 때 문이다. 어찌 됐든 특성화고가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개편 과 교육 과정 내실화 등 체질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AI)을 특화하고 있는 광주시와 연계해 관련 학과를 만들고 특 화된 인력을 배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권력남용은 불가피한 것인가/ 종교적 믿음에 갖는 것은 이성을 포기한다는 의 미인가”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자유를 포 기하는 것인가/ 문화적 다양성이 인류의 동질성을 방해하는가” 프랑스의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 2013년도와 2019년도 철학 시험 문제 중 일부이다. 이처럼 프랑스의 대입 철학 시험에서는 깊은 사고가 필요한 논술형 문 제가 출제된다. 이 시험은 난해하기로도 유명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매년 시험 직 후 주요 신문·방송이 네 시간가량 진행되는 첫날 대개 실시간 보도를 한 다는 사실이다. 국민도 출제 주제를 놓고 상정하는 문화이기도 하다. 바칼로레아의 목적은 학생의 우열을 가리거나 인재를 뽑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교 시절부터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 누구나 인재가 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바칼로레아의 합격률 은 80%에 달할 정도이다. 이 시험에 합 격한 고교 졸업생은 누구나 등록금 부담 없이 국립대에 진학할 수 있다. 200년 역

문과 연관성 있는 답을 찾는 문제인데, 정답을 제외한 오답 문항이 모 두 고려·조선 시대 사학 으로 중학생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이어서 ‘보너스 문제’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한국사는 대입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중·고교에서 6년간 배운 과목이다. 공부할 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면 수험생과 달리 수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며, 공교육 취지에도 어긋난다. 교육부는 앞으로 최 소한의 변별력을 갖춘 문제들이 출제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채희종 사회부장 chae@

수능 변별력

정치 후원금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갈 때는 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 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선거가 임박해서는 루스 베이더 디즈버그 대법관 후임 임명을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경쟁하듯 정치 후원금이 늘 어났다고 한다. 치열했던 선거 속에서 민주당의 조 바 이든 후보는 역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 넘게 모금한 반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약 7억 달러에 그쳤다고 한다. 결국 트럼프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 국에서 재선에 실패한 네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이를 보면 후원금이 미치는 것은 곧 마음이 모이는 것이라고 도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 중하게 지켜낸 대의 민주주의 안에서 각 정당과 국회의 원들을 국민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우리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매년 투표를 찾는다. 그렇지만 정치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선택한 후 보자가 반드시 당선이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들 은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참여 방법을 찾게 되었고 정당과 국회의원들도 국민들 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게 되었다. 정치 후원금은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적

극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제도 는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 합법 적인 정치 자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의 활동을 지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정치 참 여의 역할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담긴 정치 후원금은 일 하는 정치인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나아가 깨 끗한 정치를 만들 수 있다. 정치 후원금은 우리들의 생 각을 가장 명확하게 전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이다. 이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채택과 당근이 된다. 즉 후원금 기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면 그 자체로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국회에, 나아가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무언의 지지 나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 (3000만 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에는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여 세액 공제 혜 택도 받고 깨끗한 정치 문화 조성에도 기여해 보는 것 이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기 위해.

기 고



박수양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가족과 함께한 달콤한 휴일 다음에 찾아온 쌀쌀한 월 요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 국장님께서 사골에서 직접 따 온 감을 손수 깎아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셨 다. 직원들을 생각하면서 찬바람 맞으며 탄 감을 하나 하나 정성으로 깎으셨을 마음을 생각하니 출근이 힘들 다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나온 내 생각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것 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꼭 값싸거나 특별하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것들은 언제나 감동을 준다. 그리고 보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돈을 전하는 일 은 매우 흔하고 익숙하다.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고 가 족을 잃은 이웃의 슬픔을 함께 애도하며, 추운 날씨 쪽 방에서 걸터 내는 이들에게 삶의 용기를 전하고자 사람 들은 마음을 담아 후원을 하기도 한다. 돈의 많고 적음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 기 때문이다. 이렇듯 내 주머니에서 누군가에게 돈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